

전쟁과 평화

서윤석 (68 년)

나는 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인 전쟁과 평화(영문판)를 세번째 다시 읽었다. 의예과 때 처음 한글판을 읽었는데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주인공의 이름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났지만 이 작품은 다시 읽게 되는 매력이 있고 읽을 때마다 색다른 느낌을 준다. 역시 명작이다.

모스크바를 불태워서 내주고 그 작전에 말려든 나폴레옹에게 패배를 안겨준 러시아 총사령관 쿠투조브(Kutuzov)의 인내심과 전략은 누구나 알아야할 역사적 사실이다. 1,400 페이지의 긴 소설이지만 작가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휴머니즘(Humanism)이다. 당시의 귀족, 농민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세한 체험을 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전쟁터의 묘사가 뛰어나고 등장인물이 550 명이상이며 내용이 방대하다. 그 중에서 고고한 귀족 안드레이, 박애주의자인 귀족이자 지성인 피에르(Pierre)라는 남자 주인공과 연약한 그러나 성장해가는 여인 나타샤(Natasha)의 긴 시간에 걸친 파란만장한 인생의 행로, 그들이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코로나(우한폐렴)의 늪에 빠져서 집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이 소설을 10년 만에 또 읽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소설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썼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었다. 역시 시점과 주제가 질서정연하고 그 묘사가 아름답다. 소설이기보다는 철학이나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폴레옹의 침공, 1812년대 당시의 전쟁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1950년 우리가 당했던 6.25 전쟁과 현재 당면한 판데믹(PANDEMIC) 코로나 세균과의 전쟁이다. 전쟁은 될 수록 피해야 되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다른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 간다. 과연 우리 인류는 이 바이러스의 늪에서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

전쟁의 기억은 슬프다. 1950년 9.28 수복시에 나는 만 여덟 살이었고 경기도 광주에 있었다. 미군 제 2 보병사단이 국도를 따라 북진하는 행렬을 나는 형과 같이 길가에서 유엔기를 들고 환영했었다. 지프차와 얼굴에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미군들을 나는 그때 처음 보았다. 초코렛을 던져주고 껌을 씹고 손을 흔들던 그 군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한다. 인민군 포로를 차 앞에 태우고 가던 그들, 또 먹을 것을 포로에게 주면서 데려가던 그 신사적인 장면이 생각한다. 영등포에서 걸어서 조치원을 거쳐 피난을 가서 충남 공주군 장기면 금암리에서 숨어 살다가 두달 후 할 수 없이 우리 가족은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었다. 보름동안 도보로 걸어 올라와 경기도 광주땅에 도착했다. 무척 무더운 여름이었다. 우리가 걷던 길가에서는 지나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우리를 쏠 수도 있으니까 보따리를 머리에 얹고 엎드렸다. 이렇게 도착한 경기도 광주 아버지 친구집에서 우리 식구가 둘로 나뉘었다. 부모님과 형제 일부는 영등포로 가고 형 둘과 나는 남았다.



1950년 서울고등학교 2학년 서준석(徐準錫)과 미국병사(오른쪽)

유엔군이 들어왔을 때 나는 요즈음처럼 한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서 무척이나 길었다. 손톱도 길고 옷도 빨아입은 기억이 없으니 내 꼴이 더럽고 고아처럼 불쌍하게 보였을 것이다. 마침 추석 때인지라 동네집에 가서 고기국을 얻어먹던 생각이 난다. 그 고깃국 참 맛이 있었다. 그러다가 그날 밤 북진하던 미군들이 되돌아와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동네 한 마을로 밤에 피신시키고 산 속을 통하여 북으로 도주하는 인민군 패잔병이 있다면서 산을 향해서 기관총을 쏘던 생각이 난다. 그래도 형들이 쌀장사를 해서 내 방에는 쌀이 한 포대가 있었다. 쌀, 쌀이 있으면 살았다. 그때가 생각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나는 여섯 달어치 식량으로 쌀 40 파운드 두 포대를 사다 놓았다. 서양사람들은 휴지, 밀가루, 고기를 미리 사는데 나는 그런 것 보다는 쌀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당시 피난 길거리에서 호박등 주인이 없는 농작물은 그냥 따서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모두가 줌도둑이 되는 것이었다.

승승장구하던 이 2사단 미군들은 북으로 평양을 지나 압록강까지 진군했다. 두 달 후 중공군의 참여로 많은 사상자를 낸 후 퇴각하고 있었다가 또 강원도 홍천등지에서 치열한 싸움으로 또 많이 희생되었다. 그 후 재 충원을 받고 싸우고 있었던 사단이었다. 중공군 개입으로 계속되던 1-4 후퇴에서는 비로서 여기 지평리에서 전세가 바뀌게 된 것이었다. 프랑스 대대가 참여한 유명한 지평리 전투(1951년 2월 13-16일)가 바로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다. 유엔군 폭격으로 수만명의 중공군이 죽고 다친 처참한 공산군의 패배가 기록된 전투였다. 당시 통역관으로 이 공병대에 들와서 복무하던 본인의 형 서준석(당시 서울고등학교 2학년)은 지평리 전투시에 실려나갔던 중공군의 시체 행렬이 현재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하여 뉴욕병원에서 실려나가는 시신들의 행렬과 흡사하다고 이야기한다. 형은 찬송가 101 장 <주 예수 같이 귀한 것은 없어라>를 전쟁중에 어려울 때마다 미군 병사들과 같이 영어로 불렀었다고 회고한다.

우리는 모두 2001년 911 테러 참사때에 뉴욕이 당했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그날 아침에 3,000 명이 사망하고 한동안 모든 비행기가 취소되고 그해 가을 LA에서 준비되었던 미주 의대 학술대회도 참석자가 없어서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여행시에는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비록 3-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생활이 편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복잡하고 풀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사태로 얼마나 우리가 속수무책인가를 알게 되었다. 혹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세균이 유출된 것은 아닐까?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손 씻기는 물론 아이들이 부활절이라고 찾아와도 밖에서 서 있으라고 하고 문도 안 열고 바라보다가 보내기도 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 6시부터 한시간 씨니어(Senior)를 위한 식료품 구입시간이라고 해서 집에 식품이 바닥이 나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중으로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필요한 식료품을 사가지고 왔다. 크로락스(Clorax)세척제로 카트 손잡이도 씻고 셀프 지불기계 앞에서 계산하고 식료품을 차에 싣고 왔다. 집에 와서는 플라스틱 봉지 그 자체도 균이 묻어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물건들을 다 비누로 씻었다. 옷을 갈아 입고 목욕을 하고 가지고 갔던 신용카드, 지갑, 차고 갔던 시계, 열쇄를 자외선(Ultraviolet)소독기계에 넣어서 5분간 소독했다. 이 기계는 지난 주에 아마존을 통하여 큰 딸아이가 보내준 것인데 아주 유용하다.

오늘은 다행히 식료품 상점에는 뜨옴뜨옴 씨니어들이 마스크를 끼고 조심스럽게 식품을 구매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물건도 비싸기는 하지만 충분히 진열되어 있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어떤가 혹시 골프를 칠 수 있는 날씨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요즘은 아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어제 하루에 코로나로 몇명이 사망했는가를 본다. 선배님 몇분을 전화를 드렸더니 무척 심리적으로 어려워하신다. 누가 모금 운운하는데 이 사태에 무슨 말이냐고 걱정하신다. 우리가 아니라고 안심을 시켜 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신다. 며칠 전 뉴욕에서 양로원에 계시던 이운순 선배님은 코로나로 사망하셨다. 아직도 사망자가 하루에 몇 천 명씩 매일 올라가니 어찌하랴. 5월 1일 미국에서 6만 5천 명이 더 된다니 기가 막힌다. 슬픈 날이 계속되는 것이다. 2020년 봄에 우리는 참 슬프다. 늙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지난 1월 1일 경자년에는 쥐의 해라고 모두들 부자가 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실업자가 속출하고 생계가 어려움의 연속이다. 개인적으로 삼주 전에 이노바(Inova)대학병원 중환자실(ICU)에서 갑자기 떠난 사랑하는 처남의 화장된 시신을 장례도 못 치루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일도 겹쳐서 더욱 힘들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65퍼센트가 남자이고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라니 우리 미주 의대 동문들이 거의 모두가 그런 그룹에 해당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많은 피해를 남기고 일단 이번 전쟁은 끝 날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평화가 또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질병 앞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의료인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호열자), 매독, 결핵, 소아마비, 에이즈(HIV), 간염 등 모든 어려운 신종 질병을 하나하나 정복해 왔다. 앞으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위정자들은 의학자들이 하는 연구에 힘을 심어주어야 한다. 의료인들이 입지가 높아져야만 안전하다. 금전 만능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경외하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생존과 치료, 예방에 필요한 기본 물자를 생산하고 저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또 오는 무서운 세균과의 전쟁에서 멸망하지 않고 인류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War and Peace

Seo, Youn Seok

I read the English version of *War and Peace*, written by the great writer Leo Tolstoy, for the third time. When I was a premedical student, I once read in the Korean version. I recall that I had a hard time remembering the names of characters in it. But this novel gives me a significant new meaning to me every time I read it. It is a masterpiece.

In the story, Moscow, which was empty and mostly in flames, was given to Napoleon. That was a calculated plan of the Russian General Kutuzov. It was a brilliant military tactic in history. This novel contains 1,400 long pages, but its theme is humanity based on Christianity. Also, the aristocrats', peasants', and soldiers' life experiences are included very skillfully, and only experienced writers can do such a description. There are almost 550 people in the stories. Particularly the stories of the arrogant Duke Andrea, the intelligent, broad-minded philanthropist Pierre and a pretty innocent young girl, Natasha who grew up over time as a strong woman to whom these men fell in love, make many readers interested and engaged in the story.

During the house-seclusion,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I ended up reading the novel again after almost ten years. This time I tried reading it as a writer. The theme and plot are well arranged, and its description is excellent and beautiful. We can call it a history or philosophy book in addition to a novel. It is a record of the War of Napoleon's invasion in 1812. While I read this novel, I ended up thinking about the Korean war in 1950 and the COVID-19 Pandemic which we are facing. Avoiding any kind of conflict is best if we can do so. War always brings us devastation economically and mentally, and many human lives are lost. How can we recover from this virus attack?

My memory about the war is a sad and painful one. In September 1950, I was 8 years old, and I was at Kwangju, Kyunggi Province. I was greeting the soldiers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advancing to the north, by waving an UN-flag that my brother made. That was my first time seeing American soldiers. The white dust covered their faces. They gave us chocolates. They were chewing gum. They put a prisoner on the front seat of the Jeep and gave the food to the prisoner. They were gentlemen. At the beginning of the war, our family left Yongdungpo, south of Seoul, and walked on foot to Kongju, Kumamri, Sagijunggol. After staying there for two months, we had to return home on foot again. After two weeks, we arrived at Kwangju, where my father's friend's house was located. It was a hot summer. Sometimes UN airplanes flew above us, and we hid at the side of the road, covering our heads with the luggage, in case they shot us. At Kwangju, we had to divide our family members into two groups. My parents and two brothers and a sister went home, and two older brothers and I stayed with them in Kwangju.

When UN troops arrived, I had not had my hair cut for several months and had not cut my fingernails, and I never washed my clothes. Presumably, I looked like an orphan. It was Thanksgiving in Korea, so we visited a neighbor, and they treated us with a meal with beef stew. It was very delicious. At night, US soldiers returned and asked the villagers to move to one place, as they were firing guns toward the mountains, aiming at the North Korean soldiers who were retreating to the north. During the communist captivity, my brothers traded the rice bags from one place to another to make money, and we kept always a bag of rice in the room. Yes, rice! The rice was essential during an emergency for survival. I remember that. During this corona-virus crisis, most Americans had bought tissue, flour, and meat, in a hurry, but I bought two 40 pounds of bags of rice. During the Korean war, the people picked up any farm products in the fields. Everyone became minor thieves.

The 2nd Division advanced up to the Amrok river near the Chinese border, passing Pyongyang, the capital city of North Korea, but they had to retreat to the south due to

Chinese involvement. At the near Hongchon, Kangwon Province, they suffered again with many casualties and fled further south at the Chipyongri position. This was the critical line for defense and was a preparation spot for the victory against the Chinese. The famous French Battalion was one part of this 2nd Division. The Chipongri battle (Feb. 13-16th, 1951) record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military ones for UN troops. After this battle, the Chinese had to retreat to the north. The Chinese lost thousands of thousands of lives and wounded who were hit by UN airstrikes. Seo Jun Seok was the second year of Seoul High School. He joined this UN Charlie engineering battalion. As an interpreter, he participated in this battle, and he tells me that the lines of dead bodies in New York due to corona-virus remind him of the lines of dead bodies of Chinese soldiers at that time. He recalls that during the war, the UN soldiers read Bibles and sang the Hymn 101, "There is Nothing So Precious As Jesus", together in English.

We all remember the 911 terrorist attack in New York. We lost 3,000 lives that day and after that, we have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and we had to cancel the 2011 Medical LA Convention. And this time again due to this corona-virus crisis we had to cancel our Medical Convention for the 2nd time. Although we are enjoying the benefit of the result of the third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do not know what to do now in the face of a little virus attack. Also, I wonder where this strange germ originated from.

Please young people! Social distancing, washing hands, and avoiding contact are essential. I had to greet children who visited us on the day of Easter, without opening the door. At 6.00 am, I had to go to the grocery store with a mask and gloves on. It was time for seniors. Using Clorox tissue and using self-checkout was essential, and after I arrived home, I had to wash the plastic bags and foods with soap and water, and I changed my clothes and took a shower. I sterilized my wallet and credit cards by using the ultraviolet light machine for five minutes. This machine has been handy and that was a gift from my daughter through Amazon.

Today at the grocery, the seniors were on the line in one direction with the social distancing and merchandise were plenty, although they were a little expensive. In the past, I used to check the weather in the morning for golf, but nowadays, I ended up checking the number of dead people due to corona-virus. When I called our elder alumni member to say hi, I felt they were experiencing a hard time mentally. Dr. Lee, Woonsoon, the elder alumnus passed away at the nursing home. It was sad news. On June 8th, the US death toll was over 110,000. We all received a bitter spring in 2020. It is worse for elders and unprivileged persons. On January 1st they said this was the

mouse year, and we would be wealthy, but it did not happen. People lost jobs and are hungry. I lost my brother-in-law at Inova Hospital ICU, and we cremated his body without any memorial services. Most of the casualties were male over 65 years old, and they are 65% of the dead. That is the age group where most of the members of our US alumni belong.

As time passes this war will end after losing lives and leaving significant damages to us and temporary peace will arrive only for a short time. But we should remember this painful experience from the COVID-19 attack. We have to feel the value of the medical teams who fought for us, and we have to wake up alert. We have overcome many new infections against our humanity: measles, pest, cholera, syphilis, tuberculosis, polio, HIV, hepatitis, etc. In the face of this crisis, we should support the brave and brilliant people who work hard in the medical field. The politician should support their research and encourage their effort to improve our wellbeing. That is the way of restoring safety for the future. Also, we should be able to make the essential vaccine and products to use against germs in advance. That is the only way that we can survive with a lasting victory and enjoy real peace.

-----June 9th, 2020 at Haymarket, Virginia, U.S.A.
